

택당 이식의 택풍당에 내재된 『주역』의 상징체계와 건축 표현

The Symbolic System and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Zhōuyì Inherent in *Taekpungdang* of Taekdang Lee Sik

남 창 근*

Nam, Chang-Keun

((주)별터건축사사무소 이사, 공학박사)

최 정 준

Choi, Jeong-Jun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철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aekpungdang*(澤風堂, The Pond and Wind House) built by the Neo-Confucianist Taekdang Lee Sik(澤堂 李植, 1584~1647)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ymbolic system of the *Zhōuyì*(『周易』, Classic of Changes).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context, personal history, and construction process of *Taekpungdang* at the time of its creation through his collection of writings, the *Taekdanggip*(澤堂集). The study also estimated the original form of *Taekpungdang* through field surveys and historical evidence. In addition, the architectural principles and architectural expressions inherent in the *Taekpungdang* were derived based on the symbolic system of “*taekpungdaegwa*”(澤風大過) which is Lee Sik’s divination and one of the 64 trigrams in the *Zhōuyì*.

Lee Sik, who was knowledgeable in the *Zhōuyì*, used divination to cope with the chaotic political situation and his own misfortunes. Accordingly, He determined the direction of his life and planne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chitectural structure, and form of *Taekpungdang* based on the rules and meanings of his divination system. He embodied the architectural space of *Taekpungdang* with the concept of time and space inherent in the divination of “*daegwa*”,(大過, great exceeding). In addition, he expressed the principle of the generation of *palgwa*(八卦, the eight trigrams for divination) and the principle of the co-prosperity of *ohaeng*(五行, the five elements) through the composition of walls and windows of the house. The images of *Taekpungdaegwae*, which are *dongyo*(棟撓 wood submerged in the pond) and *taekmyeolmok*(澤滅木, shaking pillars), were manifested in the form of buildings. Therefore, *Taekpungdang* can be considered a remarkable example of a building designed through the thorough utilization of the *Zhōuyì* divination system.

주제어 : 택당 이식, 택풍당, 주역, 택풍대과, 괘(卦), 상(象), 형(形), 건축표현

Keywords : Taekdang Lee-Sik, Taekpungdang, Zhōuyì, Images, Form, Architectural expression

1. 서론

『주역』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교 경전으로 동아시아 문명에 있어 근본이 되는 철학이다. 우리나라 역시 고대로부터 점서(占書)이자 윤리서(倫理書), 철학서(哲學書)인 『주역』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주자(朱子)가 집대성한 성리학을 국가 운영철학으로 삼았

던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 사이에서 사서삼경(四書三經)의 하나로 매우 중시되었다.

본 연구는 건축가의 철학적 사유가 구체적 물상으로 드러난 것이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주역』에 매우 조예가 깊었던 택당 이식(澤堂 李植, 1584~1647년)이 『주역』 점괘의 상징체계를 어떻게 건축으로 구체화하였는지에 대해 그가 건립한 택풍당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 nam5785@nate.com

이식은 밖으로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병자호란, 정묘호란)와 급변하는 국내 정치(붕당)를, 안으로는 가난하고 불운한 개인사를 겪어야 했다. 이에 주역점에 조예가 깊었던 이식은 자신의 운명에 대처하고자 점을 쳤으며, 그 점괘(택풍대과)에 따라 은둔하여 택풍당을 건립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식의 문집인 『택당선생문집』을 통해 그 당시의 시대상과 개인사, 택풍당의 건립 과정을 살펴보고, 택풍당 현장 조사와 고증을 통해 이식이 건립한 택풍당의 원형을 추정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식의 점괘인 ‘택풍대과괘(澤風大過卦)’의 상징체계에 근거하여 건립한 택풍당의 건축원리와 건축표현을 『주역』의 관점에서 도출해 보았다.¹⁾

『주역』은 상징으로서의 괘상(卦象)과 변통(變通), 그에 따른 괘사(卦辭)·효사(爻辭)의 의미, 미래의 사태를 예측하는 ‘점(占)’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²⁾ 택풍당은 이러한 『주역』의 추상적인 상징과 의미를 건축이라는 물상으로 구체화한 실증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유학이라는 철학적 사유를 어떻게 건축언어로 번역하고 표현하였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는 보기 드문 사례로서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2. 택당 이식의 생애와 택풍당 건립

2-1. 택당 이식의 생애

택당 이식은 조선 중기 대사헌, 형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많은 문인과 학자를 배출한 성리학자이며,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로 꼽힐 정도로 명문장자이다. 또한, 그는 당시 잡학으로 취급했던 풍수(風水), 택일(擇日), 육효(六爻), 작명(作名) 등에도 남다른 면모를 보였던 독특한 유학자이기도 하다.³⁾

그는 서울 남소문 본가에서 태어났는데,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이다. 좌의정 이행(李荇)의 현손(玄孫)으로 부친은 좌찬성에 증직된

이안성(李安性)이다.

이식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9세 때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피난길에 올라 굶주림과 병(음, 학질, 마마, 홍역 등)에 시달려 병약한 체질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학업을 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수차례 과거 시험에 낙방한 끝에 27세가 되어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지만, 어려서부터 병약한 체질과 세상에 대한 염증으로 벼슬살이에 흥미를 갖지 못했다.

1613년(광해군 5)에는 정7품에 해당하는 설서(說書)에 임명되지만, 그해 8월 부친(찬성공)이 작고하자 지평 백아곡(안골)에 묘지를 정하고 장례를 지낸다. 이후 3년 상이 끝난 1616년 4월 함경북도 북평사(北評事)로 임명되지만, 어수선한 정국(政局)을 피해 고향인 여주를 떠날 마음으로 주역 점을 쳤으며, 그 결과인 ‘택풍대과괘 이효(二爻)’를 얻어 선묘가 있는 지평 백아곡(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백아곡)으로 거처를 옮겼다. 1619년에는 정자(亭子)이자 학문수양처인 택풍당을 건립하고 이후 12년 동안 대부분을 택풍당에 머물렀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교우들과 함께 주요 요직에 진출하여 이조좌랑(吏曹佐郎)에 등용되어 본격적으로 여러 벼슬을 역임하게 되지만, 번번이 벼슬을 그만두고 택풍당이 있는 백아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한다.

택당 이식이 활동하던 17세기 전반은 대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였는데, 그 역시 벼슬아치로서 험난한 시절을 보내게 된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찬혁사에 임명되어 인조를 모셨으며,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도 남한산성에 인조와 함께 피난하였다. 또한, 1642년에는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청나라를 배척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 그해 10월 요동(遼東)의 봉황성(鳳凰城)에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의주(義州)에서 청나라 관리에게 구금(拘禁)되었다가 탈출하는 상황까지 겪게 된다.

1643년 대사헌과 형조판서를, 1644년 예조·이조의 판서 등 조정의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나, 1646년 별시관(別試官)으로 과거시험에 낸 문제가 역모의 뜻이 있다고 모함을 받아 관직을 삭탈 당하였으며, 그 후 정치적 입지와 역량이 줄어들고, 정적도 많아지면서 병환으로 1647년 64세로 생을 마친다.⁴⁾

이렇게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던 이식은 자신의 점괘인 ‘택풍대과괘’를 마음에 두고, 군자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고자 평생을 노력하였다.

1) 택풍당 관련 연구로는 성동환, 조인철의 연구가 있다. 주로 택당 이식의 음택선정과 풍수지리적 해석을 다루었으며, 이와 함께 택풍당과 주변의 인문 공간에 대해 『택당집』을 바탕으로 간략히 다루었다. 성동환, 조인철, 『조선 중기 유가(儒家)의 세계관이 반영된 집터 선정과 건축적 표현(양평군 소재 택당이식의 택풍당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3호, 2005

2) 『주역』, 『계사전』, 易有聖人之道四焉, 以言者尚其辭, 以動者尚其變, 以制器者尚其象, 以下筮者尚其占.

3) 김현희, 『澤堂 李植의 風水觀과 葬法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1쪽

4) 장현삼,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역학적 사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2~19쪽

2-2. 택당 이식의 택풍대과괘에 대한 인식

조선시대 성리학자의 호는 대부분 거처하는 장소나 자신이 지향하는 뜻, 좋아하는 물건에서 따온 경우가 많았다. 이식의 호인 ‘택당’은 ‘택풍당’에서 따왔는데, 이는 『주역』의 ‘택풍대과괘’에 연원(淵源)한 것이다.

그는 택풍(澤風)의 상(象)을 자신의 운명으로 인식하였다. 부친이 지어 준 이름 ‘식(植)’과 성(姓)인 ‘이(李)’에 모두 목(木)이 들어가며, 자(字)를 여고(汝固)라 지어 준 것은 ‘스스로 수립(樹立)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선친의 선견지명이었으며, 이는 모두 택풍의 상과 통하는 것이라 이해했다. 이에 대해 ‘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인 만큼 절박하게 되돌아보고 살펴서 재앙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⁵⁾

택풍당을 지을 때는 오랜 벗 구득원(具得元)이 “대과지함은 대과괘(大過卦)의 넘어지는 상(象)에다 함괘(咸卦)의 빨리 감응하는 상을 겹쳐하였으니, 결코 길한 괘상(卦象)이 못 된다.”고 염려하자 이에 이식은 “나의 도(道)가 아직 꼭 막힌 상태이고, 시대가 그러하고, 운명이 그러한데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대과괘’의 ‘이효’가 그나마 길한 점사(占辭)이고, 앞으로 스스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다.⁶⁾ 비록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재앙을 피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인데, 그의 이러한 자세는 『주역』의 ‘수시변역(隨時變易)’의 정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닥쳐온 때와 운명을 따르더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변통(變通)’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에게도 불운은 피해 갈 수 없었는데, 1617년 첫째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이 불운은 자신이 점사(占辭)를 함부로 어기고 밖으로 나가 벼슬을 하다가 신벌(神罰)을 받은 것이라 통렬히 참회한다.⁷⁾ 1619년 여름에는 백아곡 자신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살림이 모조리 소실되고, 택풍당만이 무탈하였는데, 이에 이식은 진목(秦穆)⁸⁾과 같은 과오를 두 번씩이나 저질렀음을 후회하며 오랫동안 백아곡에 머물렀다

고 한다.⁹⁾

1627년에는 부모 봉양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충주목사(忠州牧使)로 나가게 되었는데, 100여 일 만에 질병이 도지고, 어린 자식을 또 잃는 불운을 겪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이식은 ‘점괘보다 더 신령스러운 것이 없는데, 몇 차례나 어겨서 스스로 패망을 불러들인 것’이라 후회한다. 또한, 이식은 노년에 대과괘에 빚대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데, ‘안으로는 은둔 생활로 인한 곤궁한 살림, 노친 봉양, 자신의 질병 등으로 근심거리가 가득했으며, 밖으로는 함정에 빠지고, 중상모략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이 대과괘의 괘상(卦象)인 택멸목(澤滅木)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모진 삶의 원인에 대해 ‘대상전(大上乾)’을 인용하여 “오직 두려워하지 않고(不懼) 근심하지 않는(無悶) 사람(聖人)만이 제어(制禦)할 수가 있는데, 자신은 그에 맞지 않는 것일 뿐 ‘대과’의 점괘가 자신을 기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소회를 남겼다.¹⁰⁾

위와 같이 이식은 자신의 운명이 비록 ‘대과괘’와 숙명적으로 얽혀 있지만, 점사인 이효(二爻)에서 희망을 보았으며, 군자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재앙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온갖 풍파에 대해서는 자신이 성인군자가 아니고, 괘를 충실히 따르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고 있다. 그가 간절히 바랐던 대과괘 이효(二爻) 점사는 그의 사후에 이루어지는데, 자손 중에 정승 3명, 판서 10명, 문과급제 22명, 무과급제 17명, 생원·진사 69명을 배출하는 명문가를 이루게 된다.

2-3. 택풍대과괘의 상징과 의미

이식이 이동할 곳으로 점친 지평 백아곡의 점괘는 ‘대과지함(大過之咸)’이다.¹¹⁾ ‘대과지함’이란 『주역』 상경(上經)의 28번째 괘인 택풍대과(澤風大過)괘가 본괘

5) 『택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잡록>, 余年十五戊元正。先考命余名植。字汝固。皆自樹立不撓之旨。蓋因姓字屬木而推義。亦澤風象也。嗚呼。皇考之錫。其肇之矣。余小子敢不夙夜深思。期不底於頻復之吝也哉。(『택당집』원문, 번역 및 표점 : 한국고전번역원)

6) 『택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잡록>, 堂之始名也。具得元以書戒之曰。大過之顛。兼咸速動。此非吉卦也。何居。答之曰。我道方否矣。奈時與命何。尚安所得全吉。特以其優於他。筮而從之。惟吾應之如何耳。

7) 『택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잡록>, 農兒在京疫夭。余自傷違筮妄出。致有神罰。

8) 옳은 말을 듣지 않다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라는 말로 진나라 목공이 백리해(百里奚)의 간언을 듣지 않았다가 참패를 당하자 후회한 일을 일컫는다. 『사기(史記)』 권5, 「진본기(秦本紀)」(한국고전종합DB 주석 인용)

9) 장현삼,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역학적 사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9쪽

10) 『택당집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잡록>, 丁卯回鑿。先已自劾歸谷數月。爲親養出。受忠州之命。到官百餘日。疾病悼天。又大困而歸。嗟乎。莫神於占筮。而屢違之。固敗是求矣。然惟在谷也。奉老居窮。違俗辭群。內而不免飢寒疾病危迫之慮。外而不免罟罾沙磧侵加之患。斯實澤木之象也。則惟所謂不懼無悶者。可以禦之而余又不能稱也。茲豈大過余欺哉。

11) 『택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택풍당지>, 將去之。筮居京。遇萃之訟不吉。筮湖南不吉。筮嶺南不吉。歎曰。靡所騁矣。乃筮砥平白鴉谷先隴之下。遇大過之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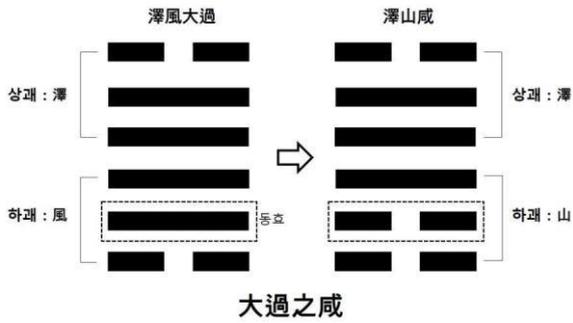


그림 1. 대과지함(大過之咸)

(本卦)이고, 여섯효 중 아래에서 위로 두 번째인 구이효(九二爻)가 음효로 변하여 지괘(之卦)인 택산함(澤山咸)괘가 되었다는 뜻이다.

『역학계몽』의 점풀이법에 따르면 변효(變爻)가 하나인 괘를 해석할 때는 본괘의 동효(대과괘의 구이효)를 중심으로 효사를 본다고 하였으므로¹²⁾ 이식이 얻은 ‘택과지함’은 택풍대과괘와 구이효(九二爻)를 중심으로 점사를 살펴보면 된다.

이식은 대과지함괘(대과괘 2효)에 대해 평하길, “말라 죽은 버드나무에 새싹이 돋어나듯 늙은이가 나이 어린 아내를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나름대로 풀이해 볼 때 다행이다. 쓰러진 나무에서 다시 움이 나온다니, 아마도 선단(善端)이 싹틀 조짐이라 하겠다.”라고 하였다.¹³⁾ 즉, 대과괘가 ‘크게 지나침’이라는 뜻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 괘이지만, 점사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본 것으로 이해된다.

택풍당이 택풍대과괘에 근거하여 건립한 건물이므로 대과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주역은 점사가 되는 효와 더불어 상(괘상(卦象)과 괘체(卦體)), 말씀(괘사(辭)), 점(占, 길흉), 변통(變)을 전체인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과괘의 괘상을 살펴보면, 상괘가 연못(澤)의 상이고, 하괘는 풍(風)으로 ‘나무’의 상으로 해석된다. 『대상전』에서는 ‘택멸목(擇滅木)’이라 하여 ‘나무가 연못에 잠겨 있는 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은 나무의 성장에 필수조건이지만, 물이 너무 과하면 나무를 잠식하고 있어, 크게 지나쳤음을 의미한다.

대과괘의 괘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아래와 가장 위가 초육과 상육으로 둘 다 음효이고, 가운데(中)는 구이, 구삼, 구사, 구오의 양효이다. 이를 장유

(剛柔)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의 상육(上六)과 가장 아래의 초육(初六)이 음효로 유(柔)에 해당하고, 구이(九二)부터 구오(九五)까지 네 개의 양효가 중첩되어 강(剛)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단전(象傳)』에서는 ‘本末弱也. 剛過而中.’이라 하였다. 이것은 상·하가 허약하여 양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대과괘(大過卦)의 내부사정(內部事情)을 살필 수 있는 호괘(互卦)를 보면,¹⁴⁾ 중천건(重天乾)괘가 되는데, 이는 양기가 최대를 올랐던 상태로 매우 힘이 센 강(剛)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늘과 같은 큰 것이 지나간다.’, 또는 ‘하늘만큼 크게 지나친 상태’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대과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도전괘(倒轉卦)와 달리 거꾸로 뒤집어도 같은 괘가 나오는 부도전괘(不倒轉卦)이다.¹⁵⁾ 부도전괘의 형상은 상·하괘를 나누는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대칭(對稱, symmetry, 상·하, 전·후, 좌·우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대과괘의 괘사(卦辭)는 “크게 지나치다. 기둥이 흔들린다. 갈 곳이 있어(갈 바를 두면) 이롭고 형통하다.”라고 하였다. 즉, 현재 처한 상황이 기둥이 흔들리고, 짐이 전복될 만큼 크게 위태로우니 이에 대처하여 나아갈 바(뜻, 의지 등)를 두는 것이 이롭고 형통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¹⁶⁾

괘사를 알기 쉽게 설명한 『단전』에서는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본말이 약하기 때문이다. 강한 것이 지나쳤으나 가운데 있어 공손하고 기쁘게 행하라.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이에 형통하니 대과괘의 때가 크도다.”라고 하였다. 가운데가 지나치게 강한 상(象)이지만, 중(中)을 얻었기 때문에 매사에 공손하고(巽) 기쁘게 행하며(兌), 갈 바를 둔다면, 크게 지나친 시대(세

14) 호(互)는 ‘서로’, ‘함께’라는 뜻으로 호괘(互卦)는 한대(漢代) 상수역의 영향으로 정착된 개념이다. 전체 6효 가운데 초효와 상효를 제외하고 2, 3, 4효를 내괘, 3, 4, 5효를 외괘로 삼아 대성괘를 만드는 것이 호괘이다. 호괘는 숨어있는 성격이나 자질, 내부사정의 뜻을 살필 수 있다. 최정준, 『주역개설』, 비움과 소통, 2014, 101~102쪽

15) 64괘 중 대과괘를 포함하여 8개 만이 부도전괘이다.

16) ‘棟’에 대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들보의 의미로 풀이하였으나, 박문호(朴文鎬, 1846~1918)는 『경설·주역』에서 동자기둥의 의미로 풀고 있으며, 현대에서도 김석진의 『대산주역강의』에서처럼 기둥의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고에서는 괘를 현실의 구체적 건축물에 응용한 사례이므로 역이 지닌 통변(通變)의 정신에 입각해 괘의 좌우로 걸친 나무가 아닌 상하로 세워진 나무로 보아 기둥으로 해석하였다. 택당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전』에서도 ‘본말이 약하다’는 표현은 나무의 좌우가 아닌 상하의 구조를 지목한 것이다.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1』, 대유학당, 2019 참조.

12) 『역학계몽』, 『고변점』, 一爻變則以本卦變爻辭占.

13) 『택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택풍당지>, 遇大過之咸. 其爻曰. 枯楊生梯. 老夫得其女妻. 無不利. 解之曰. 庶幾哉. 其顛而復咎乎. 抑萌善之兆也.

표 1. 『주역』, 태풍대과괘(澤風大過卦)의 과상(卦象)과 과사(卦辭)·효사(爻辭)의 상징과 의미

과사	· 卦辭：大過，棟撓，利有攸往，亨。(기둥이 흔들리는 것이 대과, 갈 바를 돕이 형통하다.)				
	· 象傳：象曰，“大過”，大者過也，“棟撓”，本末弱也。剛過而中。巽而說行，利有攸往，乃亨。“大過”之時大矣哉! (크게 지나침이 대과이다. 본말이 약하기 때문에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다. 강이 중(中)에 지나쳤으나, 겸손하고 기쁘게 행하고, 나아 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이에 형통하다. 대과괘의 때가 크다.)				
· 大象傳：象曰，澤滅木，大過，君子 以獨立不懼，遯世無悶。(연못이 나무를 멸하는 것이 대과이다. 군자는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피해 있어도 민망함(번민함)이 없다.)					
과상(卦象)	효사(爻辭)	소상전(小象傳)	길흉	상징	의미
☱ ☲	上六，過涉滅頂，凶，无咎.	象曰，“過涉之凶”，不可咎也.	흉, 무구	연못	지나치게 건너감, 끝남, 죽음, 탓할 수 없음
☱ ☲	九五，枯楊生華，老婦得其士夫，无咎无譽.	象曰，“枯楊生華”，何可久也?“老婦士夫”，亦可醜也.	무구무예	늙은 버드나무의 꽃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지속 가능하지 않음, 부적절함
☱ ☲	九四，棟隆，吉，有它，吝.	象曰，“棟隆之吉”，不撓乎下也.	길, 인색	기둥(높음)	높고 튼튼함
☱ ☲	九三，棟撓，凶.	象曰，“棟撓之凶”，不可以有輔也	흉	기둥(흔들림)	도움 될 것이 없음 (도움이 필요)
☱ ☲	九二，枯楊生稊，老夫得其女妻，无不利.	象曰，“老夫女妻”，過以相與也.	무불리	늙은 버드나무의 새싹 늙은남자, 젊은여자	생육과 계승, 희망, 지속 가능성
☱ ☲	初六，藉用白茅，无咎.	象曰，藉用白茅，柔在下也.	무구	피풀	지나친 때에 지나친 정성은 잘못함이 아니다.

상)이지만, 이롭고 형통함이 있다는 뜻이다.

괘의 전체적인 상(象)과 그 당위법칙을 설명한 「大象전(大象傳)」에서는 군자(君子)가 본받아야 할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과의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도) 군자는 홀로 서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크게 지나친 대과의 시대에) 세상을 피해 있다고 하더라도 번민이 없다.”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효의 길흉, 효에 내재된 의미와 상징을 효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육(初六)은 가장 아래에 자리한 음효로 “흰 띠 풀로 자리를 깔아 허물이 없다.”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자는 “삼가함이 지극함이라, 무릇 띠의 물건됨이 박하나 쓰는 것은 가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 이 방법을 삼가서 써 가면 잃는 바가 없으리라.”라고 하였다.¹⁷⁾ 이는 대과의 시대에 지나치게 삼가고 지극한 정성을 다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이(九二)는 태당 이식이 점친 효로 아래에서 두 번째 중(中)을 얻은 양효이다. 효사를 보면, 오래된 버드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늙은 남자(九二)’가 ‘젊은 아내(初六)’ 얻었으므로 비유하면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无不利)’고 보았다. 이는 지나친 대과의 시대(오래된 버드나무, 늙은 남자)에 계승과 생육(버드나무의 싹, 젊은 아내)의 상징을 만났으니 이롭다고 본 것이다.

구삼(九三)은 하괘의 가장 위쪽에 자리한 양효이다. 중(中)을 못 얻고 양자리에 있어 지나치게 동적이고 흔들린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기둥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흉(凶)’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상전(象傳)」에는 “도움(輔)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단정 짓고 있다.

구사(九四)는 하괘(내괘)에서 상괘(외괘)로 넘어간 첫 번째 효(爻)로 건물의 높은 자리에 자리 잡은 기둥으로 보아 길(吉)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그 융성해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흔들리는 요인에 이끌리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구오(九五)는 상괘의 중(中)에 있는 양효로 정중(正中)을 얻었다. 효사에는 ‘오래된 버드나무에서 꽃을 피우며, 늙은 여자(上六)가 젊은 장부(九五)를 얻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전」에는 “고목에 핀 꽃이 오래갈 수 없고, 젊은 장부와 늙은 여자(생육 불가)가 만나는 것이 비록 허물은 없으나 명예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대과의 시대에 생명의 연속성(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상육(上六)은 대과괘의 가장 위에 자리한 음효이다. 이에 대해 효사에서는 ‘(건너지 말았어야 할)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빠져버린 형국’으로 대과의 시대에 모든 것이 파국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미 물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흉(凶)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의 허물도 아님(无咎)을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과(大過)괘는 무엇인가 크게 지나친 상황을 상징하는 괘이다. 이는 이식이 점을 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인 광해군대의 폐모론과 봉당정치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이식은 이 점괘의 과사의 숨은 뜻과 효사의 길함을 보고 지평 백아곡으로 은둔하여 태풍당을 건립하게 된다.

17) 『주역』, 「계사전 상」, 8장, ‘初六 藉用白茅 无咎. 子曰 苟錯諸地 而可矣 藉之用茅 何咎之有 慎之至也 夫茅之爲物 薄而用 可重也 慎斯術也 以往 其无所失矣’

3. 태풍당 현황과 원형 고찰

3-1. 태풍당 건립과정 및 연혁

태풍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1613년부터 1619년까지 이식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식은 원래 외가가 있는 여주 강구촌(여주군 대신면 보통1리)에 살고 있었는데, 지평 백아곡과의 인연은 선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당한 못자리를 물색하면서 시작된다.¹⁸⁾

이식의 부친 이안성은 전라도 고부와 경기도 여주에 각각 떨어져 있던 부모의 묘를 합장할 곳을 찾고 있었고, 백아곡은 그 후보지 중 한 곳이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613년 사망하자, 이식은 부친 묘소로 지평 백아곡을 선정하였고, 이듬해(1614년)에는 조부모의 시신을 합장하면서 선영을 안정시켰다.¹⁹⁾

삼년상이 끝난 해인 병진년(1616, 광해군 8년) 1월 갑술일에 이식은 여주를 떠날 결심으로 주역점을 치게 되는데, 이러한 결심의 배경에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국(인목대비 폐모론)²⁰⁾의 여파가 그가 살고 있던 여주에까지 영향을 미쳐 같은 당인들(서인)이 화를 입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신도 화를 당할까 두려워 피해 있을 곳을 찾기 위해 점을 치게 된 것이다.²¹⁾

처음에는 본가가 있는 서울을 점쳐 보자 취지송(萃之訟)의 불길한 괘(卦)가 나왔고,²²⁾ 호남과 영남 역시 마찬가지로였다고 한다. 이에 피할 곳이 없음을 탄식하다가 지평 백아곡의 선묘 아래를 점친 결과 대과지함(大過之咸)의 점사(占辭)를 얻게 되었고, 이에 힘을 얻어 1616년 지평 백아곡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²³⁾

18) 성동환·조인철, 「조선 중기 유가(儒家)의 세계관이 반영된 집터 선정과 건축적 표현(양평군 소재 태풍당이식의 태풍당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3호, 2005, 369쪽

19) 이안성은 유언으로 자신을 어머니 묘소(이식의 조모) 곁에 임지로 장사(葬事)하였다가 추후 좋은 자리를 얻게 되면 옮길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이식은 집안 사정이 어렵고, 모친이 연로한 이유를 들며 부친의 장사를 3개월이나 미뤄가며 묘소로 선택한 곳이 지평 백아곡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614년 조부모의 시신을 백아곡으로 모셔 오게 된다. 성동환·조인철, 앞의 책, 370쪽

20) 복인이 득세하여 인목대비에 대한 폐모론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계축옥사(1613년), 영창대군 증살(1614년), 인목대비를 경운궁에 두고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한 사건(1615년 4월)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1) 『태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태풍당지>, 時事大變。驪鄉方有黨人之禍。余亦懼及。將去之。

22) 취지송(萃之訟)은 본괘(本卦)가 택지취(澤地萃)괘이고, 2효와 6효가 동(動)하여 지괘(之卦)가 천수송(天水訟)괘로 변한 것이다. 택지취괘는 사람이 모이는 괘이고, 천수송괘는 언쟁과 송사가 있다는 뜻으로 당쟁과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 된다.

23) 『태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태풍당지>, 筮居京。遇萃之訟不吉。筮湖南不吉。筮嶺南不吉。歎曰。靡所騁矣。乃筮砥平白鴉谷先隴之下。遇大過之咸。其爻曰。枯楊生梯。老夫得其女妻。無不

이듬해인 1617년, 선전관을 지내는 등 평온한 듯하였으나, 1618년 1월 맏아들을 병으로 잃고, 1619년 4월에 병조좌랑에 임명되었으나, 대신들의 반대 의견이 분분하자 바로 사퇴하고 돌아와 태풍당을 짓게 된다.

그가 태풍당을 짓게 된 연유는 「계산지(啓山志)」, <동계기(東溪記)>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집은 원래 백아곡 골짜기 어귀의 큰길가에 있었는데, 사내종이 허약해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응접하기에 고달프고, 잇따른 재난으로 형편이 곤란하여 골짜기 안쪽(안골)으로 들어와 살면서 태풍당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²⁴⁾ 다른 글에서는 자신의 불효를 탄식하면서 이곳에 집을 지은 이유에 대해 ‘산에 가서 나물 캐고, 들에 나가 밭을 갈아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세시(歲時)에는 가족과 함께 묘소 참배하며, 물러나서는 고급의 문자를 열람하고 스스로 참회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밝히고 있다.²⁵⁾ 즉, 선영을 참배하기 위한 재실 용도와 학문 수양처로서의 용도로 태풍당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태풍당은 마을 학동을 모아 가르치는 강학처로도 사용되었다.²⁶⁾

한편, 이식은 태풍당을 신령스럽게까지 생각하였는데, 벼슬길에 오를 때는 태풍당 신명(神明)과 이별을 고하는 축문(祝文)을 남겼을 정도이다. 축문에는 태풍당을 ‘사당(辭堂)’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주역』을 만든 성인(복희씨, 문왕과 주공, 공자)의 말씀(辭)을 담은 집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⁷⁾ 또한, 매년 세시(歲時)가 되면 말미를 청해 돌아와 태풍당에 머물면서 선영과 친지를 돌보고, 태풍당도 수리하였다고 한다.²⁸⁾

태풍당에 대한 애착은 그의 임종까지 이어지는데, 1647년 노환으로 자신의 운명이 다하였음을 짐작한 그는 첫째 아들이 지어준 계산재²⁹⁾에서 태풍당으로 거처

利。解之曰。庶幾哉。其顛而復也乎。抑萌善之兆也。

24) 『태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동계기>, 余初卜居谷口。已架屋數間。既而見其地濱官路。奴僕單弱。苦驛行應接。余又續嬰災難。事力不給。仍住谷內廬舍。作澤風堂。非初志也。

25) 『태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신기 제2>, 嗟夫。余天之僇民也。生而不能養。歿而不能殉。沈沈而息。蠢蠢而作。其所以異於窮山之禽鹿者幾希。今但築居谷口。採山耕野。以供祭祀。歲時。扶挈老幼。羅拜墓前。退伏一室。省闕古今文字。以自懺悔。終吾身而已。又何暇搜奇抉異。侈耳目之玩。以重不孝之感哉。

26) 덕수이씨 중증회장 이광에 따르면, 이식은 태풍당에서 자식들을 비롯해 마을 학동과 후학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태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태풍당지>, 置書若干秩。聚旁谷村學童數人。

27) 『태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사당축문(辭堂祝文), 天啓三年六月初吉。德水李植。敢告于澤風堂之靈。

28) 『태당선생문집 제4권』, 「시」, <補澤堂>

29) 계산재(啓山齋)는 1641년에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온 태당 이식을

를 옮겼으며, 그곳에서 임종을 맞는다.³⁰⁾

이식이 죽고 난 뒤 택풍당은 현재까지 5차례의 중건과 중수가 있었다고 하는데,³¹⁾ 확인



그림 2. 1978년 중건 이전 택풍당 (사진 : 덕수이씨 문정공종회 제공)

가능한 것은 3차례이다. 택풍당 종도리 장여에 남아 있는 상량문을 통해 1752년(영조 27)에 중건하였음이 확인되는데,³²⁾ 초창 이후 133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건물이 매우 쇠락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중건은 덕수이씨지동세장지비(1749년)를 세운 이식의 증손 이기진이 주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³³⁾ 상량문에는 1978년 5월 8일(음력 4월 2일) 재중건 기록도 남아 있는데, 이때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마지막 수리는 2009년 6월 10일 이루어졌는데, 기와 및 부식된 목 부재를 교체했다고 한다.

주목되는 점은 중건이나 중수 시에 건물의 원형(구조와 형태)을 그대로 둔 채 보수하였으며, 지붕 재료만 바꾸었다고 한다. 초창 시에는 나무껍질(굴피집)로 지붕을 이었으며, 이후 띠풀집(1752년으로 추정)과 초가집, 마지막은 기와집으로 중건(1978년)하였다.

3-2. 택풍당 건축 현황

택풍당의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옛 지명 : 지평 백아곡) 314번지이다. 백아곡은 경기 지평현 동쪽 경계의 마산 아래 안골에 해당하는데, 이식은 「계산지」, <산기(山記)>에서 백아곡의 지리와 산수의

위해 큰아들 이면하(李冕夏, 1619~1648년)가 지어 준 8칸 규모의 초옥이다. 초옥의 서재(西齋) 이름은 예전(29년 전)에 지었던 계산지에서 뜻을 취하여 계산재(啓山齋) 하였다고 한다. 『택당집 제5권』, 「시」, <啓山齋時>

30) 『宋子大全』, 諡狀, 澤堂 李公 諡狀, “정해년(1647, 인조25) 3월에 이질(痢疾)이 재발하자 공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중략...5월에 계산재(啓山齋)에서 택풍당(澤風堂)으로 옮겼다.”

31) 군 관계자에 따르면, 택풍당을 처음에 지을 때 지붕을 나무껍질로 이었으며, 그 후 후손들이 다섯 차례 중수했으나 원형은 그대로 둔 채 보수를 했다고 한다. 지붕은 굴피에서 띠풀, 초가, 기와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한다. 시티뉴스 2009년 6월 11일 기사

32) ‘崇禎紀元後 壹貳四年 辛未 四月二日 重建’

33) 이식의 증손인 이기진(李箕鎭, 1687~1755년)은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택풍당 중건 1년 전에 관둔녕부사(1751년)에 임명되었으며, 3년 전인 1749년에는 덕수이씨세장지비를 세우고, 족형인 이태진, 이도진 등과 함께 중약을 제정하는 등 종족 간의 화의(和議)를 돈독하게 하는 데 힘썼다고 한다. 양평군, 『양평군지』, 1991.

형세를 상세히 서술해 놓았다.³⁴⁾

이를 정리하면, ‘백아곡의 산세는 오대산에서 이어져 내려온 산맥이 마산(馬山)에 이르러 왼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백아곡을 이루었는데, 여기서 오른쪽(서쪽)으로 능선이 마치 허리띠처럼 휘둘러 에워싸 보호해 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쪽 능선과 동쪽 능선이 백아곡의 어귀를 향하고 있으며, 좌우로 여러 산봉우리가 마치 양 손가락을 엮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백아곡 안쪽으로는 다섯 개의 개울이 동쪽과 서쪽의 여러 산에서 흘러 내려와 합수하여 큰 내를 형성하는데,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현재의 지형 지세와 다르지 않다.



그림 3. 택풍당 입지와 백아곡 전경



그림 4. 택풍당 입지와 백아곡 주변현황(구글어스 편집)

택풍당은 백아곡의 가장 안쪽 ‘안골’의 서쪽 능선에 바짝 붙어 자리 잡고 있는데, 서에서 동으로 낮아지는 경사지형이며, 좌향은 동남향(S22°68' 80"E)이다. 택풍당은 기와담장과 사주문으로 둘러싸인 일곽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데, 북쪽과 서쪽, 남쪽으로는 낮은 능

34) 『택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산기(山記)>, 白鴉谷在京圻砥平縣東境馬山下。北距縣治二十五里。東與關之原橫二界接。西南距驪江一舍餘。其山自關東五臺山迤北而來。抵砥界西轉而爲友峴。又轉而爲惡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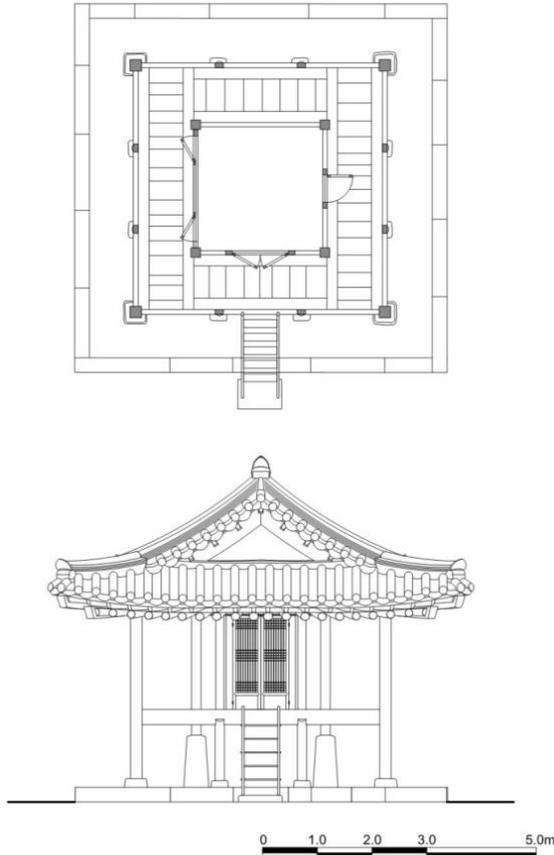


그림 5. 태풍당 평면도 및 남측입면도(필자 실측)

선이 태풍당을 감싸고 있고, 동남쪽 약 200m 지점 백아곡 동쪽 능선 자락에는 이식을 포함한 부모, 조부모, 이식의 두 아들의 묘소가 자리 잡고 있다.

태풍당은 폭과 너비가 같은 정방형평면인데, 중앙에 1칸 규모의 실(室)을 두었고, 사방으로 반칸 너비의 뒷마루를 두었다. 실(室)은 동-서, 남-북이 2.36m로 같고, 퇴칸을 포함한 전체 길이도 4면이 모두 4.55m로 동일하다. 퇴칸 폭은 약 1.1m이다.

건물의 규모는 외관상 정면 3칸, 측면 3칸이지만, 바깥쪽 모서리 기둥 4개를 제외하면 모두 처마도리를 받치고 있는 보조기둥이기 때문에 간잡이로 보기 어렵다. 중앙 1칸과 사방(四方)으로 낸 퇴칸 너비를 고려하면 2칸 규모의 건물로 볼 수 있다.

기단은 장대석 기단이며, 방형기둥은 거칠게 다듬은 사다리형초석 위에 세웠다. 1층 바닥은 지표에서 약 1.2m가량 띄웠는데, 그 하부는 현재 창고로 쓰고 있다. 남측면 중앙에 설치된 목조계단을 통해 올라서면 뒷마루를 통해 사방을 순회할 수 있고, 중앙의 실(室)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중앙 실 동측벽에는 높이 1.15m, 너비 0.51m의 한쪽여닫이문, 남측벽에는 높이와 너비가

각각 1.78m, 1.04m인 두 쪽여닫이문과 ‘태풍당(澤風堂)’ 현판이 걸었다. 서측벽에는 높이와 너비가 각각 1.78m, 1.95m의 들어열개문을 두었다.

태풍당의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의 실과 퇴칸 네 귀퉁이에 있는 정방형 기둥이 집 전체를 잡아주는 구조들이 되고, 한면에 2개씩 설치된 보조기둥은 지붕하중과 뒷마루를 보조적으로 받는 역할을 한다. 뒷마루 하부 보조기둥은 원



태풍당 서남쪽 전경



연등천장과 지붕가구



태풍당 현판

그림 6. 태풍당 전경, 실내 및 현판

기둥인데, 상면에 ‘ㄷ’자 턱을 두고 뒷마루 인방을 올려놓았다. 상부 보조기둥은 장방형으로 뒷마루 인방 위에 설치되어 있고, 상부는 처마도리를 받치고 있다.

지붕가구는 퇴칸까지 포함하면 5량가로 볼 수 있지만, 대들보와 뒷보 없이 도리와 장여로만 구성된 간략한 구조이다. 실(室) 남쪽벽과 북쪽벽 도리 위에 대공을 세우고, 그 위에 남북방향의 중도리를 걸었으며, 서까래는 상연과 하연이 중도리 위에서 교차하도록 설치하였다.

태풍당의 각부 높이는 기단 27cm 내외, 기단 상면에서 뒷마루까지 120cm, 뒷마루에서 중도리 하면까지 240cm이고, 중도리에서 중도리 상면까지는 대략 88cm이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며, 현판이 걸린 남쪽(정면)으로 합각이 형성되어 있다.

3-3. 태풍당 원형 고찰

태풍당은 수차례 중건과 보수로 일부 변형된 상태인데, 그 원형은 「태풍당지」와 1978년 중건 이전 사진 자료, 유사사례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태풍당지」에는 ‘태풍당의 형상은 루(樓)와 같고, 그 높이는 16척이며, 가운데 1칸은 방이다.’라고 하였다.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건물의 형상과 평면은 기록과 동일하며, 높이 16척은 기단 상면에서 용마루 아래 연목까지 높이 4.88m(1척, 30.5cm×16척)와 일치한다.³⁵⁾

35) 태풍당 서측면 전체 길이는 4,575mm인데, 이를 영조척 1척(尺)을 305mm로 가정하면 15척이 된다. 이를 높이 16척에 대입하면,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건물의 축조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둥을 따라서 흙벽을 쌓다가 그 절반쯤 되는 위치에 온돌을 놓았고, 벽에는 창을 내었다. 벽 밖으로는 네 기둥을 두고, 판자를 깔아 처마(軒)를 확장하였다. 그 높이는 온돌과 같고, 가로와 세로 기준으로 세로는 2배이다.’라고 온돌과 뒷마루를 설명하고 있다.³⁶⁾



그림 7. 옥산서원 무변루(좌)와 상주 대산루(우) 아궁이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창건 당시 택풍당 중앙의 실은 온돌방이었으며, 아궁이와 굴뚝은 옥산서원의 무변루, 상주 대산루와 같이 하부벽체의 중간 높이에 설치했음을 알 수 있다.³⁷⁾ 지붕에 대해서는 ‘제일 위는(上覆) 나무껍질(木皮)로 덮고, 대충 도끼로 다듬어 놓았을 뿐이다.’라고 간략히 언급하였다. 창건 당시 지붕 형태는 1978년 중건 이전에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하였을 때 합각부가 없는 우진각지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 형태와 재료를 참고할 수 있는 강원도 삼척 대이리굴피집은 종량 위에 대공을 세우고, 그 위에 종도리와 종도리장여를 걸어 지붕가구를 구성하였다. 지붕상면에는 굴피로 엮고, 그 위에 가로와 세로 방향의 누름목을 나무덩굴로 동여매었으며, 굴피가 날려가지 않도록 누름돌을 군데군데 놓았다. 이러한 지붕 형태는 이식이 지은 시 구절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껍질 벗겨서 덮어 가리고, 등나무 덩굴로 단단히 동여맸네’라고 한 구절을 연상케 한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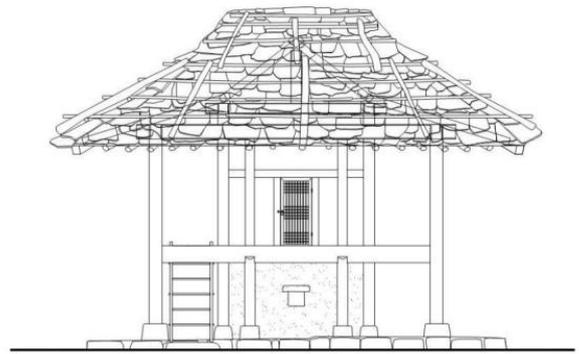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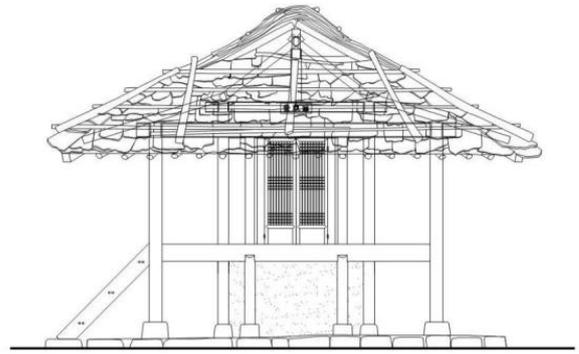
한편, 현재 택풍당은 겹처마인데, 1978년 중건 이전 초가지붕에서는 홑처마였음이 확인된다. 창건 당시도 굴피집과 격이 맞는 홑처마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880mm로 산정할 수 있다.

36) 『택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택풍당지>, 堂之形似樓。高十六尺。中一間爲房。依楹築土。及半而安垓。有窓壁。外拓四楹爲周阿。排板爲軒。視垓之高。廣半而袤倍。無障蔽可環而延望。軒下東偏地沮洳。引泉爲方池。池中留小堆。樹以柳。堂內實外虛。池中有木。皆澤風象也。房內壁端。列畫六十四卦。並其象辭。南窓兩傍。大書大過象辭八字。堂制朴略。上覆以木皮。斤斲而已。

37) 종중회장 이광씨에 따르면 1978년 중건 이전까지는 온돌방이었는데, 아궁이는 동쪽에 있었고, 굴뚝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 무변루나 대산루와 같이 벽면에 굴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8) 『택당선생문집 제4권』, 「시」, <補澤堂>, ‘初冬補澤堂, 木皮爲蓋覆, 藤蔓以維綱’



0 1.0 2.0 3.0 5.0m

그림 8. 택풍당 복원안(上: 남측면도, 下: 동측면도, 필자 작도)

현재 기단은 1~2벌대 장대석기단인데, 초가지집이었을 당시 사진 자료와 후손의 전언에 따르면, 조선시대 일반 민가에서 볼 수 있는 토축기단이었다고 한다.

실(室) 안에는 ‘벽에 64괘의 도표와 그 상사(象辭)를 나열해 걸어 놓고, 남쪽 창호의 양옆에는 대과(大過)의 상사 여덟 글자(獨立不懼 豚世無悶)을 크게 써 놓았으며, 남측벽에는 ‘택풍당’이라는 작은 현판을 달았다.’고 하였는데, 64괘 도표를 걸어 놓은 벽은 창호가 없는 북측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판은 남측벽에 잘 남아 있다. 이러한 꾸밈은 이식이 『주역』이라는 학문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와 함께 ‘대과괘’를 한시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택풍당에 오르는 목계계단은 현재 남측면 정중앙에 있는데, 옛 사진에는 서측면 남편에 설치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지금과 같이 정면에서 바로 당(堂)으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서측면에서 뒷마루로 올라선 후 남측면으로 이동하여 실(室)로 들어가는 동선이었다. 또한, 현재 서측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 전체가 분합문인데, 사진상으로는 서측면 북편으로 중인방과 벽체가 확인되며, 창호가 있는 부분은 가려져 있다. 가려놓은 부분의 폭을 고려하면 세짝들어열개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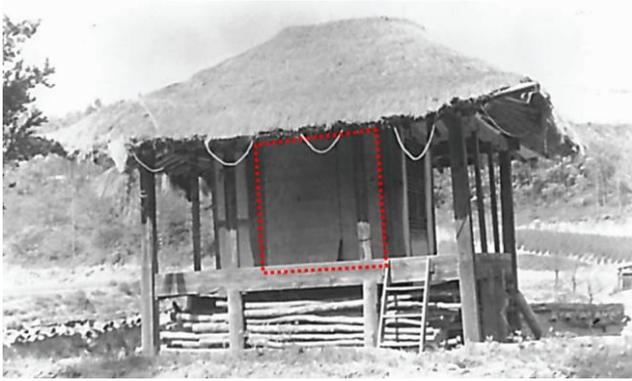


그림 9. 태풍당(서측면) 옛 사진(자료: 양평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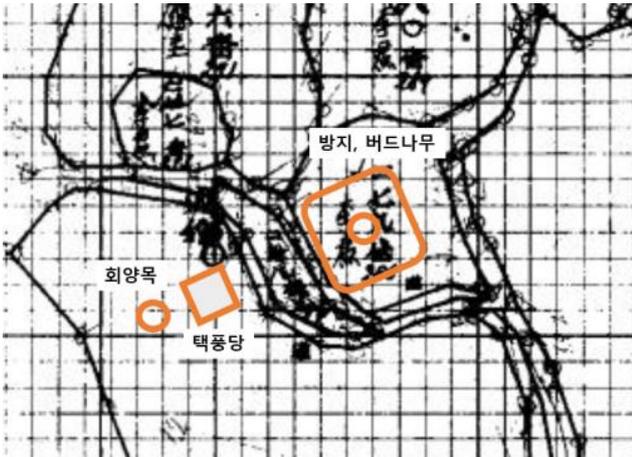


그림 10. 지적원도와 태풍당 간략 배치

태풍당 경내 서편에는 자연 지형을 이용해 1.0m 내외 높이의 석축을 쌓고 화계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 위에는 이식이 태풍당 건립기념으로 심었다는 회양목(수령 약 400년)이 남아 있다. 담장은 기와를 얹은 토축담장이었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고 하며, 남쪽에는 규모가 작은 사주문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태풍당지」에는 태풍당 동쪽에 연못을 조성해 놓았다고 한다.³⁹⁾ 지적원도를 살펴보면, 태풍당 동쪽 279번지(垆)는 방형의 필지로 서편으로 물길을 끼고 있는데, 현지조사 결과 주변보다 낮은 지형이다. 이곳에 방형연못을 만들고, 가운데 버드나무를 심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39) 『태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태풍당지>, 軒下東偏地沮洳。引泉爲方池。池中留小堆。樹以柳。(마루 아래 동쪽 땅에 움푹 팬 습지(濕地)가 있었으므로 샘물을 끌어다가 네모진 못을 만들고는 못 속의 조그마한 흙더미를 그대로 놔 둔 채 그 위에다 버드나무를 심었다.)

40) 이광씨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까지 태풍당 동쪽에 한변이 6~7m 정도되는 방형의 연못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섬에는 밀동나무 남은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는 연못 제방 흔적 남아 있다.

4. 태풍대과괘의 건축적 구현

4-1. 대과괘의 건축 적용

(1) 은둔처로서 백아곡과 태풍당

이식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의 여파를 우려해 은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역점을 쳤다. 그 결과 ‘대과괘’가 나왔는데, 그 괘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크게 지나치다.)과 앞으로 닥칠 정치적 위태로움(기둥이 흔들린다.)이 상통하는 면이 있고, ‘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다.’라는 구절 역시 은둔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과 같아 백아곡을 은둔처로 결심하였다.

이와 더불어 「계사전」에는 “옛날 장사 지낼 때는 봉분도 없고, 나무도 심지 않았는데, 후대에 성인이 관곽(棺槨)으로 바꾸었다. 이는 대과괘에서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과괘에서 관곽을 쓰는 매장문화가 유래하였다는 것이다. 은둔처로서의 ‘선영 아래’와 대과괘의 매장문화는 ‘장사(葬事)’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식에게는 운명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⁴¹⁾

이식이 백아곡을 은둔처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대과괘 ‘이효’의 효사(늙은 버드나무에서 싹이 나고, 늙은 남자가 젊은 아내를 얻는다.)에 근거한다. 크게 지나친 시대를 피해 은둔하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음 자세는 「대상전」에서 취하였다. ‘군자는 홀로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피해 있어도 근심함이 없다.’라는 괘사에 따라 대과(크게 지나친)의 시대를 피해 은둔하지만,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홀로 당당히 뜻을 세우는 선비의 자세로 삼았다.⁴²⁾

(2) 상(象)에서 형(形)으로의 건축 표현

「계사전 하」, 3장에는 ‘역(易)은 상(象)이다.(是故 易者 象也)’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계사전 상」, 1장에는 ‘하늘에서 상(象)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형(形)이 이루어진다.(在天成象, 在地成形)’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상(象)은 근원적이고, 추상적인 ‘모습’을 뜻하고,

41) 『주역』, 「계사전 하」, ‘古之葬者는 厚衣之以薪하여 葬之中野하여 不封不樹하며 葬期無數러니 後世聖人이 易之以棺槨하니 蓋取諸大過하고...’

42) 태당 이식은 ‘대과괘는 현재 상황을神明(神明)이 알려준 것이며, 공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천명 두려워하고, 대인과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뜻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 『태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태풍당지>, ‘其大象曰。獨立不懼。遯世無悶。又歎曰。斯聖人之事也。余何敢當。余何敢當。或者神告之時象然乎。世其宜遯而立其宜獨乎。卽不懼無悶。非聖賢孰能之。子曰。畏天命。畏大人。畏聖人之言。余小子。又安敢迷斯象而褻斯義乎。’

표 2. 대과괘의 시·공간개념과 택풍당 건축 및 공간 요소

괘상	효사 물상	시간	공간		택풍당 건축 요소	공간 요소
■ ■	연못	終	上, 末	邊, 外	상부 : 지붕(굴피지붕)	邊 : 툇마루
■ ■ ■ ■	늪은 버드나무의 꽃	中	中	中, 內	축상부 : 도리, 장여, 외곽기둥·보조기둥 등	內 : 실(室)
■ ■ ■ ■	기둥(높음)				축부 : 기둥, 벽체, 툇마루, 외곽기둥·보조기둥	
■ ■ ■ ■	기둥(흔들림)				축하부 : 기둥, 온돌, 툇마루, 외곽기둥·보조기둥	
■ ■ ■ ■	늪은 버드나무의 새싹					
■ ■ ■ ■	띠풀을 깎다.	始	下, 本	邊, 外	하부 : 기초, 기단, 툇마루 하부 등	邊 : 툇마루

표 3. 택풍대과괘의 건축 적용

구분	내용	의미	적용	건축 표현
괘사	크게 지나친 것이다.	혼란스러운 정국(폐모론, 붕당)	立地	지평 백아곡, 산으로 가려진 골짜기 마을(선영 아래)
	기둥이 흔들린다.	다가올 재앙		
	갈 곳을 두면 이롭다. 형통하다.	대비책(이동, 은둔)		
단전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본말이 약하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정국	象→形	형태 : 중앙에 벽체를 세우고, 위(지붕)는 굴피로 유(柔)하게 덮고, 아래는 띄워서 비움 공간 : 중앙에 실(室)을 두어 강(剛)하게 하고, 바깥으로 누마루를 두어 유(柔)하게 함
	강한 것이 지나쳤으나 가운데 있어 공손하고(손괘) 기쁘게(택괘) 행하라.	군자의 처신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이에 형통하니 대과괘의 때가 크다	대비책(이동, 은둔)	立地	지평 백아곡 산으로 가려진 골짜기(선영 아래)
대상전	연못이 나무를 멸하는 것이 대과이다.	다가올 재앙	象→形	동쪽 습지에 방형 연못을 조성하고 버드나무를 심음
	군자는 이를 본받아 홀로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군자의 처신과 자세	義→形	우뚝 서 있는 건물의 형태
	세상을 피해 있어도 근심함이 없다.		義→立地	은둔(지평 백아곡 선영 아래)
효사(九二)	오래된 버드나무에 싹이 난다.	새로운 희망	象→形	검소하고 소박한 의장(버드나무), 중앙 실(室, 싹)

형(形)은 구체적인 ‘모양’을 일컫는다.

이식은 택풍당을 대과괘의 상(象)에서 취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과괘의 상(象)을 구체화된 형(形)인 건축으로 표현한 것이다.⁴³⁾ 동쪽 습지에 조성한 방형의 연못과 못 속에 흙더미를 쌓고 버드나무를 심은 것은 「대상전(大象傳)」의 ‘택멸목(澤滅木)’ 상(象)을 구체적인 형(形)으로 드러낸 것인데, 직관적인 물상(物象)을 취하여 표현한 것이다.⁴⁴⁾

가운데 실(室)을 두고, 주변으로 누마루를 두른 것은 ‘강유(剛柔)’의 관점으로 대과괘를 풀이한 「단전」의 ‘본말약야(本末弱也) 강과이중(剛過而中)’이라는 괘상(卦象)을 건축공간인 형(形)으로 구현한 것인데, 강(剛)과

유(柔)의 개념을 내·외(內·外=안과 밖), 실·허(實·虛=채움과 비움)의 건축공간 언어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대과괘의 괘체(卦體)와 괘상(卦象)의 시·공간적 함의(상·중·하, 본·중·말, 시·중·종)에 근거해 택풍당의 전체형태와 입면 구성을 해석할 수 있다.

대과괘의 초효는 음효로 그 성질은 유(柔)이며, 시간적으로는 시작(始)이고, 공간적으로 가장 아래에 해당한다. 이를 택풍당에서는 토축기단과 띄워져 있는 툇마루 하부공간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이에서 구오까지는 양효로 시·공간적으로 중(中)이며, 성질로는 강(剛)에 해당하는데, 택풍당에서는 밖으로 드러난 강직한 부재들로 구성된 축부에 해당한다. 건축 요소로는 기둥과 벽체, 창호, 보조기둥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흙벽으로 단단히 둘러싸인 실(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상육은 음효로 그 성질은 초효와 같이 유(柔)이며, 시·공간적으로는 가장 위(上)와 끝(終)을 의미한

43) 『택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택풍당지>, ‘堂內實外虛。池中有木。皆澤風象也。’

44) 팔괘의 상(上), 하(下) 두 괘체(卦體)의 조합을 연못에 잠긴 나무라는 상으로 보았으며, 이를 형으로 구체화하여 ‘연못’과 ‘버드나무’를 조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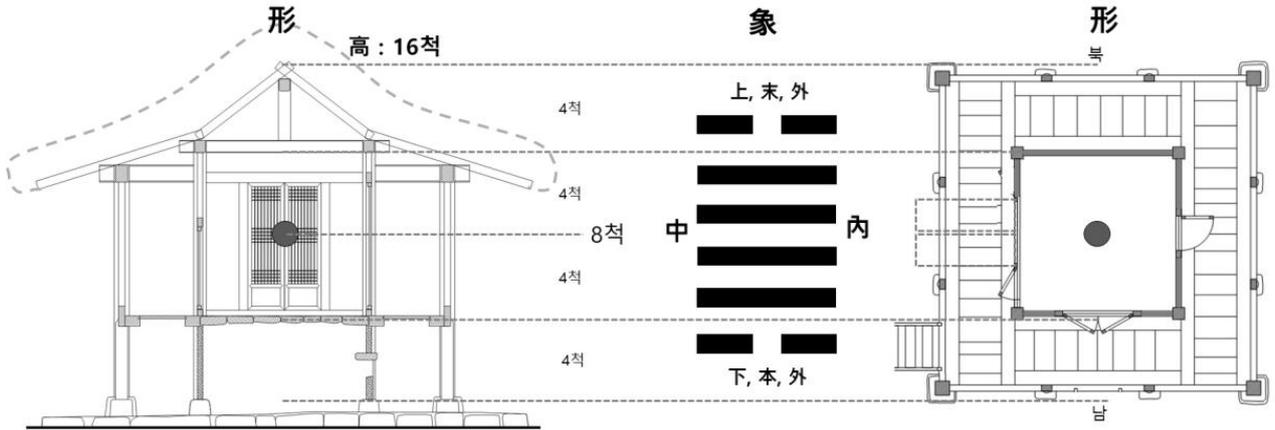


그림 11. 태풍당에 내재된 태풍대과괘의 공간개념

다. 태풍당에서는 가장 윗부분인 지붕에 해당하는데, 성글고 유순한 굴피로 끝맺음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대과괘의 시·공간적 함의는 건물 높이를 16척으로 정한것과도 맞닿아 있다. 태풍당의 단면은 초석~뿃마루, 뿃마루~실 중심, 실 중심~중도리, 중도리~연목 4척씩 4등분 할 수 있다. 이를 대과괘의 괘상과 비교해 보면, 건물의 중심을 기준으로 아래는 하괘, 위쪽은 상괘와 대응된다. 중앙의 실(室) 8척은 단단한 흙벽으로 양효가 몰려 있는 형국과 같고, 비어있는 하부와 성글게 엮은 상부는 각각 4척으로 음효에 해당한다. 여기서 '16'이라는 수를 상수역학적으로 보면, 64괘를 4등분한 숫자인데, 64괘의 호괘(互卦) 숫자와 일치한다. 역(易)에서 만유(萬有)가 살고 있는 집인 우주(宇宙)를 64괘로 상징한다고 할 때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16괘이니 '16'은 소우주적 의미를 지닌다.

(3) 나무(木)의 상(象)과 보(輔)의 개념

이식은 자신의 성(姓)과 이름에서 들어간 '木'과, 흔들리지 말라는 뜻의 자(字)인 여고(汝固), 대과괘의 '나무'가 자신과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그의 점사인 구이효의 효사는 '늙은 버드나무에 짝이 난다.'임을 상기할 때 그는 태풍당의 물상(物象)을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설정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⁴⁵⁾

이러한 관점에서 태풍당의 건축 요소 중 가장 주목되는 부재는 실(室)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과 뿃마루

외곽 네 모서리 기둥, 그리고 뿃마루 단면에 등간격으로 설치한 보조기둥이다. 이 기둥들은 건물 전체하중을 받아주고, 외력에 대응하는 가장 주요한 구조체이다.

4개의 기둥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우인(1561~1625년)이 쓴 「태풍당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태풍대과괘의 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뚝 서서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는 것은 네 개의 양효(陽爻)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견고하고 굳센 ‘기둥’이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였다.⁴⁶⁾ 즉, 대과괘의 2, 3, 4, 5호를 굳건한 4개의 기둥으로 본 것인데, 이는 대과괘의 상(象)을 태풍당의 거대한 4개의 기둥이라는 구체적인 형(形)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조기둥은 구삼효의 「소상전(小象傳)」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구삼효는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흉한 것이다. 도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象曰, 棟橈之凶, 不可以有輔也)”라고 하였는데, 『주역』은 수시변역(隨時變易)을 통해 흉을 피해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나무(이식, 태풍당)가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방안을 보조기둥(輔:뿃방나무보, 도움, 보좌)이라는 건축부재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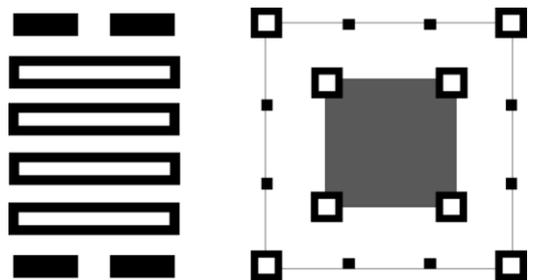


그림 12. 대과괘 2, 3, 4, 5호(陽)와 태풍당 기둥

45) 태당 이식이 마음속 깊이 바랬던 바는 태풍대과 구이(九二)의 점괘이다. ‘오래된 버드나무에 짝이 나고, 늙은이가 젊은 처자와 장가를 가니 이롭다.’고 한 것에서 희망을 보았으며, ‘지나침으로써 더불어 사는 것’은 향촌에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대과의 시대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늙은 버드나무에 짝이 난다는 것은 자손, 후학을 길러냄을 의미하며,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6) 『태당선생문집 별집 제11권, 「계산지」, <태풍당기>, “而其能挺然不顛不仆者。以其四陽在中而堅剛撐柱故也。”

이와 더불어 이식은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상을 택풍당 서편 화계에 회양목을 심어 구체화시켰다. 실(室)에서 서쪽 분합문을 열면 택풍당 건립을 기념하여 심은 회양목이 한눈에 들어온다. 황색 버드나무를 닮아 황양목이고도 불리는 회양목은 매우 더디게 자라서 속이 매우 단단한 나무인데, 택풍대와괘가 ‘흔들리는 기둥’의 상(象)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흔들리지 않는 나무(여교)를 상징적으로 심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대과괘 구이 효사의 ‘늙은 버드나무’를 구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13. 이식이 식재한 회양목

이식은 이 회양목을 주제로 시를 남겼는데, 소동파(蘇東坡)의 ‘퇴포(退圃)’라는 시의 한 구절인 ‘黃楊厄閏年(오직 황양목은 윤년에 재앙을 당한다네)’⁴⁷⁾을 차용하여 자신의 뜻을 시에 담았다.⁴⁸⁾ 시를 풀이해 보면, ‘길흉이 반복됨은 당연한 이치인데, 안으로 견고해지고, 겸양(謙讓)으로 행하며, 곧은 마음(真心)으로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한다면, 아무리 재앙의 때가 오더라도 하늘이 버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회양목(황양목)은 대과의 시대를 극복함에 있어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의 다짐이자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표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부도전괘(不倒顛卦)의 대칭성 표현

대과괘는 위와 아래를 뒤집어도 같은 괘가 나오는 부도전괘이다. 이는 형상과 공간의 관점에서 전·후, 좌·우, 상·하의 대칭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대칭성은 각 효의 효사에서도 확인된다. 초효와 상육(띠풀과 연못), 구이와 구오(늙은 버드나무, 젊거나 늙은 남자와 여자), 구삼과 구사(흔들리는 기둥과 높은 기둥)는 상괘와 하괘를 나누는 가상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물상이 같거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효마다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른데, 이를 구조적 대칭과 내용적 비대

칭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괘상(卦象)과 효사(爻辭)의 대칭성은 택풍당의 입면과 평면에서도 드러난다. 전체높이 16척의 중심인 8척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아래 기단부와 가장 위의 지붕은 강유의 관점에서 유(柔)한 성질로 대칭이지만, 형태적으로는 비대칭이다.

또한, 택풍당의 정방형 평면 특성상 동-서와 남-북축을 기준으로 구조적, 공간적 대칭을 이루지만, 입면 구성에 있어서는 상호 비대칭이다. 동쪽과 서쪽은 지붕면의 형태가 같지만, 창호 문짝 수량이 각각 1, 3개(陽數)로 다르고, 북쪽과 남쪽은 지붕의 합각면이 같지만, 창호 문짝 수량은 0, 2개(陰數)로 다르다. 즉, 지붕면을 포함한 건물의 형태는 전·후, 좌·우가 대칭이지만, 창호 구성을 포함하면 대칭적 비대칭의 구성이다.

한편, 택풍당은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으로 서로 다른 2개의 중심축이 형성되어 있다. 건물의 정면(남측면)과 배면, 진입 방향과 좌향(남향) 등에 의해 남-북 중심축이 형성되며, 서고동저의 지형에 따른 배산임수의 측면에서는 산→회양목→택풍당→연못과 버드나무로 이어지는 동서방향의 축이 형성된다. 지붕면을 근거로 하면 동-서축이 정축이지만, 좌향과 진입, 현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남-북축이 정축이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축은 대과괘의 대칭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

4-2. 복희팔괘차서도의 상수적 표현

택풍당 실(室)의 북쪽을 제외한 동, 남, 서측벽 창호의 문짝 수량은 각각 1, 2, 3개이다. 문짝 수량이 방향에 따라 다른 것은 채광, 동선처리의 기능적 측면도 있겠지만, 상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의도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동쪽에는 벽체의 절반 높이에 인방을 설치하였고, 그 아래 벽체를 수직으로 삼등분한 중앙에 한쪽세살여단이 문이 설치되어 있다. 실(室)에서 문을 열면 동남쪽으로 이식의 선영이 보이고, 동쪽 아래로는 대과괘의 상인 연못과 버드나무가 내려다 보인다. 남쪽에는 벽체의 중앙에 두쪽청관여단이문이 설치되어 있고, 문 위에는 상인방이 가로질러 있으며, 그 위 납도리에는 택풍당 현판이 걸려 있다. 서쪽은 앞에서 고증한 바와 같이 세쪽청관들어열개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북쪽에는 창호도 없고, 인방(引枋)도 없는 순수한 흙벽이다.⁴⁹⁾

47) 소동파는 시의 주석에 “속실에 황양목은 1년에 한치씩 자라다가 윤년을 만나면 세치가 줄어든다.”라고 하였다.

48) 『택당선생문집 제5권』, 「시」, <黃楊厄閏年(題本玉堂月課。借以寓意。)> 積餘成閏數當然 奚獨黃楊厄此年 不是化工培更覆 緣渠索性退能堅 松杉作伴先推長 桃李雖華肯鬪妍 大廈扶傾他日事 真心聊表歲寒天

49) 이러한 창호의 구성은 채광이나 통풍을 고려한 측면과 함께 취하고자 하는 경관을 중시한 의도적인 건축계획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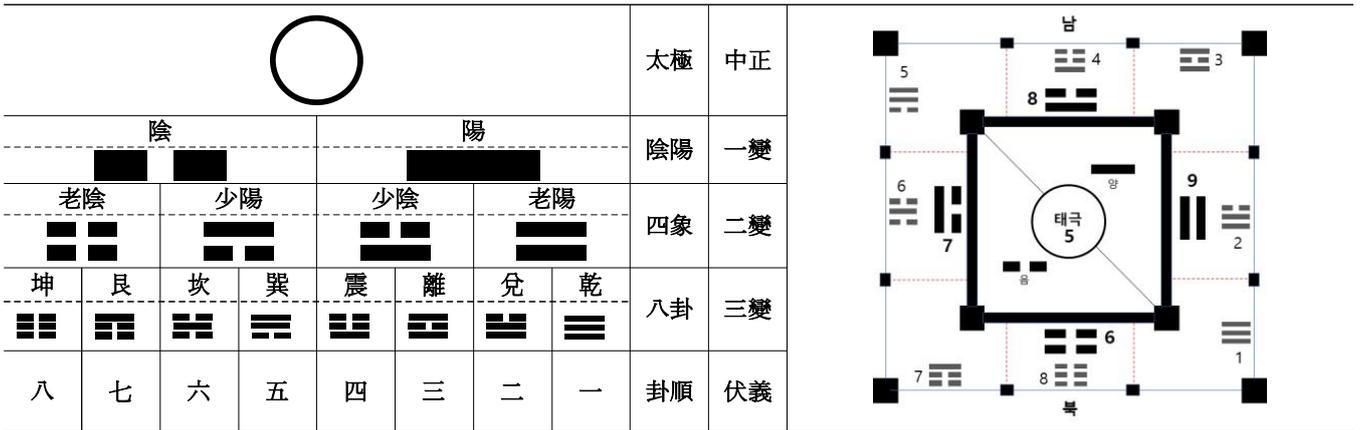


그림 14. 태풍당에 내재된 복희팔괘차서도(伏羲八卦次序圖)의 팔괘 생성원리

이러한 방위별 벽체와 창호의 구성은 복희팔괘차서도(伏羲八卦次序圖)에 그려진 팔괘의 생성원리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계사전 상』, 제12장에는 팔괘(八卦)의 생성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로 역에는 태극이 있고, 태극은 양의를 낳으며,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을 팔괘를 낳는다. 팔괘가 길흉을 결정하며 길흉이 대업을 낳는다.”라고 하였다.⁵⁰⁾

태풍당의 사면(四面)의 벽체에서 햇빛이 드는 창호를 양(陽, -)으로 가정하면, 북쪽은 창호가 없으므로 노음(老陰, ::)이 되고, 작은 창호가 있는 동쪽은 노음(::)에서 양(-)이 생겨난 소양(少陽, =)으로 볼 수 있다. 창호가 가장 큰 서쪽을 노양(老陽, ==)으로 설정하면, 남쪽은 노양(==)에서 음이 생겨난 소음(少陰, ::)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조합하면 사상(四象)이 되는데, 각각의 위(位)는 노양 1, 소음 2, 소양 3, 노음 4이며, 그 수(數)는 노양 9, 소음 8, 소양 7, 노음 6이 된다. 이를 하도(河圖)로 풀면, 6은 1이 5를 얻은 것이고, 7은 2가 5를, 8은 3이 5를, 9는 4가 5를 얻은 것이다.⁵¹⁾ 여기서 '5'는 중심의 실(室)로 볼 수 있다.

사상(四象)은 양의(兩儀)에서, 양의는 태극(太極)에서 생하였다고 하는데, 태당이 거쳐왔던 중앙의 실(室)을 태극(○)으로 본다면, 노양(==, 서)과 소음(::, 남)이 있는 남서쪽이 양(-, 陽)이 되고, 태음(::, 북)과 소양(=, 동)이 있는 북동쪽이 음(-, 陰)이 되어 이를 조합하면 음양(陰陽)이 된다.

팔괘(八卦)는 사상(四象) 위에 각각 일기일우(一奇一偶)를 생(生)하여 세 획으로 구성된 것인데, 노양에서 일건천(一乾天, ≡)과 이태택(二兌澤, ≡), 소음에서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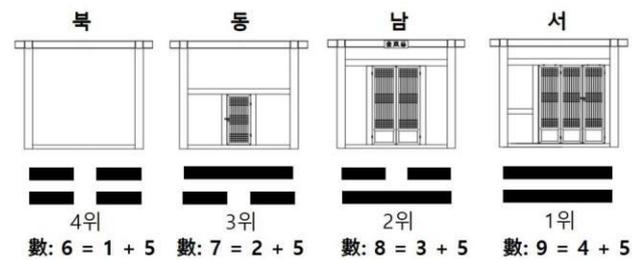


그림 15. 각 방위별 벽체 창호와 사상(四象)

리화(三離火, ≡), 사진뢰(四震雷, ≡), 소양에서 오손풍(五巽風, ≡), 육감수(六坎水, ≡), 노음에서 칠간산(七艮山, ≡), 팔곤지(八坤地, ≡)가 생한다. 이를 태풍당에 적용해 보면, 툃마루 외곽 기둥과 보조기둥으로 나뉘는 8개의 공간에 8괘를 배치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태풍당 실(室)이 태극이고, 그 안에서 음과 양이 분화되며, 사면 벽체에서 사상(四象) 드러나고, 툃마루 8개 공간에서 팔괘가 생성되는 원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복희팔괘차서도(伏羲八卦次序圖)의 팔괘생성원리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태풍당의 사면 벽체의 창호와 동선은 음양오행의 상생원리로도 풀이가 가능하다.⁵²⁾ 『춘추번로(春秋繁露)』, 『오행지의(五行之義)』에는 ‘첫째가 목(木)으로 여기서 시작한다. 위치는 왼쪽(동), 계절은 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실(室)에서 동쪽 창호를 통해 밖을 내다 보면 태풍대과의 모양(연못과 버드나무)과 선영이 시야

52) 『서경(書經)』, 『홍범(洪範)』편에 오행의 차례와 그 성질을 처음으로 밝혔으며, 그 후 전한(前漢)의 동중서(董仲舒)가 『춘추번로(春秋繁露)』, 『五行之義 第四十二』에서 목을 오행의 시작으로 하여 목, 화, 토, 금, 수의 차서(次序)를 달리하고 오행의 각 목에 사방(四方)과 사시(四時)를 배속하였으며, 나아가 팔괘를 결합하여 오행(五行)상생(相生)설(說)을 밝혔다. 『춘추번로(春秋繁露)』, 『五行之義 第四十二』, “天有五行：一曰木，二曰火，三曰土，四曰金，五曰水。木，五行之始也，水，五行之終也，土，五行之中也。此其次之序也。木生火，火生土，土生金，金生水，水生木，此其父子也。木居左，金居右，火居前，水居後，土居中央，此其父子之序，相受而布”

50) 『주역』, 『계사전 상』, 제12장, “是故,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51) 최정준, 앞의 책, 2014, 28~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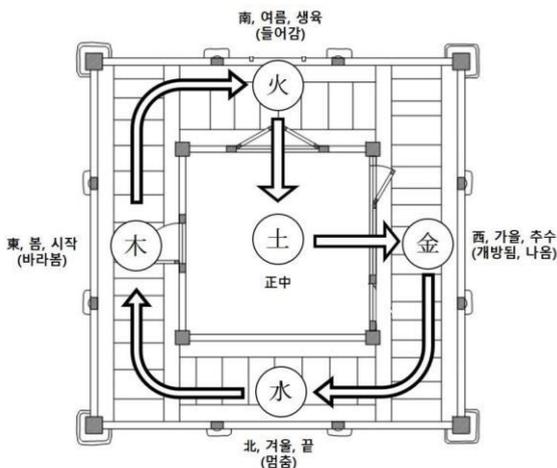


그림 16. 택풍당 동선과 음양오행 상생원리

에 들어온다. ‘둘째는 화(火)로 위치로는 앞(남), 계절로는 여름이다.’라고 하였는데, 택풍당의 전면 남쪽에 해당하며, 빛마루를 통해 중앙의 실(室)로 들어간다. ‘셋째는 토(土)이고, 위치는 중앙이다.’라 하였는데, 흙벽(土)으로 쌓은 1칸 실(室)에서 머무르며 사방을 두루 살필 수 있다. ‘넷째는 금(金)으로 오른쪽(서)이며, 계절로는 가을이다.’ 하였는데, 택풍당 실(室)에서 서쪽 들어열개문을 열어 개방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 ‘다섯째 수(水)는 마침을 의미하는데, 위치상으로는 뒤(後, 북)이고, 계절로는 겨울이다.’라 하였는데, 만물이 땅 아래 감추어지고, 동결된다는 뜻이 있다. 이는 택풍당의 북쪽, 창호가 없는 순수한 벽체로 ‘멈춤’, ‘동결’, ‘수장’의 의미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정리하면, 택풍당의 각 방향별 창호의 구성과 동선, 건축공간 등을 통해 팔괘의 생성원리와 음양오행의 상생 순서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5. 결론

이상에서 택당 이식이 건립한 택풍당을 통해 그가 『주역』을 어떻게 그의 삶에 이용하였고, 역(易)의 함의(含意)와 상징(象)을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形)에 적용하고,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식은 주역점을 활용해 인생의 향배를 결정하고, 점괘의 괘상과 변화를 통해 건축의 환경과 구조·형태를 디자인하여 조영하였고, 해당 괘효사를 마음속 깊이 새겨 인생의 처세를 하였다.

이식은 택풍대과괘의 말씀(辭)에서 은둔의 결심과 은둔처를 결정하였으며, 삶의 자세로 삼았다. 또한, 대과괘의 괘체의 성질(本末弱也. 剛過而中)에 내재된 시·공

간 개념을 택풍당의 건축공간으로 구현하였으며, ‘연못에 잠긴 나무’와 ‘흔들리는 기둥’으로 상징되는 괘상(卦象)은 변통의 관점에서 연못에 잠겨 있지 않은 버드나무와 거둬진 4개의 기둥, 보조기둥(輔), 화계에 심어놓은 회양목 등으로 ‘흔들리지 않는(汝圃)’ 형(形)으로서의 건축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역』에 정통했던 이식은 벽체와 창호의 입면계획과 평면 및 단면계획을 통해 팔괘의 생성원리와 오행의 상생원리를 담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식은 『주역』의 괘상과 그 변화, 그에 따른 괘효사의 의미를 점(占)을 통해 자기 생애에 철저히 활용하였으며, 『주역』의 사변상점(辭變象占)에 대한 이식의 사상을 택풍당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조선시대 성리학자가 조영한 건축은 유학의 철학적 함의가 내재되어 있지만 택풍당처럼 철저히 『주역』의 한 괘를 활용한 건축은 매우 희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周易』
- 『澤堂先生文集』
- 『易學啓蒙』
- 『春秋繁露』
- 『宋子大全』
-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1:상경』, 대유학당, 2019
- 최정준, 『주역개설』, 비움과 소통, 2014
- 양평군, 『양평군지』, 1991
- 김현희, 『澤堂 李植의 風水觀과 葬法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장현삼,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역학적 사유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성동환, 조인철, 『조선 중기 유가(儒家)의 세계관이 반영된 집터 선정과 건축적 표현(양평군 소재 택당이식의 택풍당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3호, 2005
- 진민령, 김수진, 김충식, 『택당 이식의 택풍당 경영과 동계팔경』, 『한국전통조경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 19권 제 1호』, 2019

접수(2023.04.28.)

게재확정(2023.07.24.)